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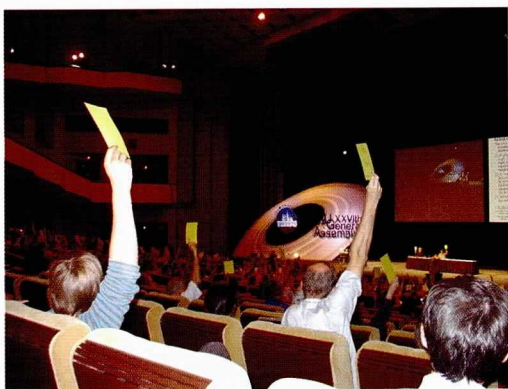
## IAU 참관기\_행성에 대한 정의 채택

글 | 김호일 박사(대형망원경사업그룹)

제26차 국제천문연맹 정기총회가 지난 8월 14일부터 25일까지 12일간 체코공화국 프라하에서 열렸다. 프라하는 요하네스 케플러와 티코 브라헤 등 당대의 최고 천문학자들이 일하기도 했으며, 도시 전체에 천문시계 등 천문학과 관련된 많은 유물과 유적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는 역사도시이다. 프라하에서 국제천문연맹 총회가 열린 것은 1967년에 이어 두 번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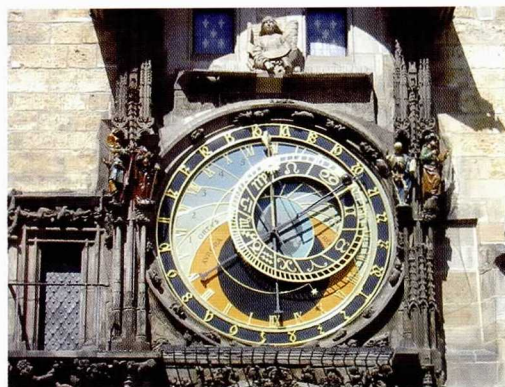
▶ 이번 총회를 거쳐 명왕성은 행성의 지위를 잃게 되었다. 일러스트 | IAU



▶ 투표가 진행 중인 총회장 모습



▶ 헝가리의 Kataline Ilona Olah(가운데)와 미국의 Kam-Ching Leung(오른쪽)과 함께



▶ 프라하 구시청사 벽의 천문시계

이번 총회에는 전 세계에서 2500여명의 천문학자가 참석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약 35명이 참가하였다. 총회기간 중에 6개 분야의 심포지엄, 17개 분야의 합동발표(joint discussion) 그리고 7개 분야의 특별발표(special session) 등의 학술행사와 2009년 천문학의 해 준비 등을 포함한 3개의 소모임 토론회와 각 분과의 분과회의(business meeting)가 열렸으며, 두 번의 총회가 8월 15일과 24일 오후에 각각 열렸다. 국제천문연맹에서 결의되는 사항들이 대체로 천문학자들에게나 관심있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이번 총회에서는 세계인들의 주목을 끄는 "태양계 내의 행성에 대한 정의"가 결의안으로 올라와 천문학자뿐만 아니라 세계인의 주목을 끌었다.

전 세계에서 파견된 보도진의 취재 열기 가운데 24일 오후 2시에 열린 총회에는 약 600여명의 IAU 회원이 참여하여 열띤 논쟁과 투표 끝에 태양계 내의 행성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채택하였다. 즉, ①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②충분한 질량을 가져 정역학적 평형 상태 즉, 구형을 이루며, ③ 자신의 공전궤도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행성이라고 하고, 구형의 천체이며 태양주위를 공전하기는 하지만 자신의 궤도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천체들을 왜소행성이라고 하며 그 이외의 태양을 공전하는 물체를 작은 태양계물체(Small Solar System Bodies: SSSB)라고 한다는 것이다. 이 정의에 의해 명왕성은 행성의 지위를 잃게 되었다.

한편 연세대 명예교수인 나일성교수가 IAU 41분과인 천문학사 분과의 회장이 되어 앞으로 3년간 이 분과를 이끌어가게 되었으며, ESO의 대장인 Catherine Cesarsky 박사가 차기 회장에 선임되었다. 다음 총회는 2009년에 브라질 리오 데 자네이로에서, 그리고 제28회 총회는 2012년에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다.